프랑뱅

1

프랑스 국립대학 물리연구원에 따르면 폴 프랑뱅 교수가 ‘꿈의 에너지 감지’ 헬륨-마이크로원 개발에 드디어 성공했다고 한다. 프랑뱅 교수는 돌 속에 있는 에너지 상태의 암모니아의 전기장이 균일하게 걸려 있는 메이저 공동(masercavity)에서 방출하는 마이크로파 진동 감지 연구를 수년간 진행해 왔다. 프랑뱅 교수는 막바지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교수의 개발은 인간이 시시각각 변하는 돌의 에너지를 코드화 하여 읽을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 장치는 조만간 사물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 오랜 주술적 주장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

“가없은 내 남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아니 그는 두려움이 뭔지, 죽음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그저 살이 썩어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잠에 깨면 괴로워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던 내 눈도 못 마주쳤어. 나는 그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다짐하며 매일 아침마다 몸을 깨끗이 씻었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주무르고 그의 고름을 닦아냈어.</br>

그러자 기적처럼 그 자가 우리 동네에 찾아온 거야. 그자가 내 두 눈을 마주치며 내 손을 잡고는 자신이 다 죽어가는 개를 살렸다고 했어, 내 남편도 살릴 수 있다고. 남편은 그가 준 이상한 포도주를 마셨지. 그와 나는 남편을 둘러싸고 기도했어.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그는 웃었지. 다음날, 남편이 죽어버리자 그는 남편이 천국에 갔다고 손뼉을 치고 노래를 하자 했어. 남편의 엄마는 그이의 이름을 귀에 속삭이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 옆에 있던 그의 아버지는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나를 감싸더군. 천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br>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아주 지루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만 할 뿐이야.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개 같은 새끼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상상해. 내가 상상할 수 있을 때가지, 내게서 사라질 때가지, 이 세상에 둔탁한 소리만이 울리도록 내가 내 가슴을 치고 쳐서 온몸이 굳어 돌이 될 때까지”

3

프랑뱅은 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봤던 피라미드를 상상했다. 피라미드가 바위가 될 때까지.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 만 떠올랐다. 무너지는 피라미드 돌에 깔린 모래들도 원망만 하며 살겠지. 그리고 그는 앞에 있는 돌을 발로 차버렸다.